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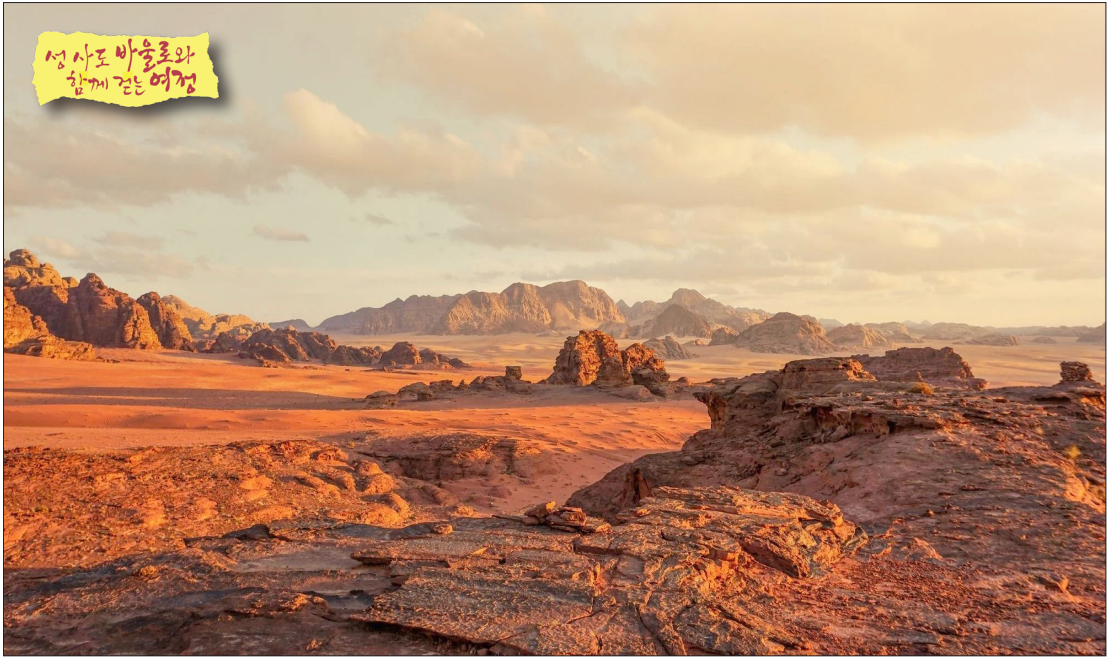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62호

2026년 2월 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사도 바울로와
함께 걷는 여정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다스리던 아라비아. 그곳에서 바울로는 침묵과 단련의 시간을 보냈다.

[프리오디온 기간 시작]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성 트리폰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54
 - 사도경 : 로마 8,28~39 · (봉)566
 - 복음경 : 루가 18,10~14 13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아라비아와 침묵의 시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뵈 후, 사울의 행보는 예상 외였다.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을 만나는 대신, 홀연히 ‘아라비아’로 떠났다.(갈라디아 1,17 참조) 그에게는 타오르는 열정만큼이나,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비워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에서 보낸 약 3년은 침묵의 시간이자, 평생 공부했던 율법과 예언서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치열한 영적 재정립의 시기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막은 박해자 사울의 허물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로라는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는 단련의 장소였다.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유대인들의 매서운 핍박이었다. 아레다 왕의 총독이 성문을 지키며

잡으려 하자, 신자들은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고린토 후 11,32-33; 사도행전 9,23-25 참조)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울이 그 작은 바구니에 몸을 의지한 모습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사도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화려한 세상의 갈채 대신 사막의 고독을, 세상의 명예 대신 성벽 아래로 달아 내려지는 수모를 받아들인 이 시간은 바울로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 주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갈라디아 1,11-12 참조)

한국 대주교 2026년 사목 지침서

(지난 주에 이어서)

3.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남몰래 자선을 베풀고, 고통받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우리의 원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그 사람을 눈으로조차 보고 싶지 않게 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게 만들 때도, 우리는 기도 안에서 끝까지 버팁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 ○○을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떤 형태로든 해를 끼친 이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4. 입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시다.

절대로 험담하지 맙시다. 설령 스스로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변명으로도 험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욕설을 삼가고, 분노에 휩쓸리지 말며, 이웃을 판단하지 맙시다. 유혹이 다가올 때는 곧바로 예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악마를 불태우는 능력이 있기에, 악마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뿌르피리오스 성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혀로는 오직 축복만 말하라. 그 밖의 모든 것은 독이다.”

5. 고백성사와 성체성혈성사에 자주 참여합니다.

고백성사를 받기 위해 먼저 “더 나아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다리지 맙시다. 실천적인 회개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욕정과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더 나아지기 위해 고백성사를 드리고,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하느님에 대

한 경건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받아 모십니다. 성체성혈성사는 참으로 유일한 ‘불멸의 약’입니다.

6. 금식을 삶의 방식으로 삼읍시다.

금식을 단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음식에 관해서만 지키는 데 그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정과 악습에 대해 금식합니다. 곧, 이기심과 남을 판단하는 마음, 분노와 질투, 부정한 생각들에 대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금식을 실천하며, 매일 사용하는 시간에 분명한 한계를 둡시다. 우리의 시간은 거룩하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그 시간을 기도에 더 많이 바치고, 이웃과의 참된 만남과 소통에 사용하며,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7. 매일 조금씩 성인들의 생애를 읽읍시다.

예를 들어, 우리 대교구의 2026년 달력에 헌정된 현대 성인들은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기에, “이 시대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거나 “성인들은 오직 고대에만 존재했다”는 그릇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줍니다.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인들은 결코 초인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겸손을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회개의 눈물과 피를 통해 참된 겸손에 이른 사람들이었으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느님의 모습대로 닮아 가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투쟁한 이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의 겸손은 가식적인 겸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빛의 기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예가 뿌르피리오스 성인입니다. 성인은 통찰의 은사를 받았고, 성인의 기



도를 통해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성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또한 6세기의 이집트의 성 마리아는 사막에서 47년 동안 햇볕에 그을린 채 홀로 살다가 조시마 성인을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신부님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물 위를 걸었고 조시마 성인의 삶을 훤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수도 생활의 아버지이신 대 안토니오스 성인(† 356)은 수도사들의 방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부님,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수행자이신데,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러자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영적 투쟁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8. 거룩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침은 이것입니다.

억지와 긴장, 압박 속에서 성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다. 뵤르피리오스 성인이 권면했듯이, ‘부드러운 방식으로’, 날마다, 점점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고 싶어지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룩함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서히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새해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히브리서 12,14)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성모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루가 17,21) 우리의 영적 투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 나아가며, 우리의 내적 세계를 변화시켜 갑시다. 아멘

2026. 1. 18

주간 예배 안내

* 2월 2일(월)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하시는 주님)



■ 바로 잡습니다

탁상용 축일 달력의 2월 7일 복음경 구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존) 루가 20:46-21:4, 8

(정정) 루가 20:46-21:4, 8:8

알림

■ 프리오디온 기간을 잘 보냅니다

오늘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과 이어지는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서적(‘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프리오디온을 의미있게 보내고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번 주기는 첫 주기로 금식이 해제됩니다.

■ 온라인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대주교님의 영성 강론이,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주일학교 모임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참여 문의는 각 성당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 대교구 겨울 수련회를 마치며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춘천에서 학생부(초등-고등) 수련회가,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신데즈모스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부 수련회에는 서울, 인천, 전주, 울산 성당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예배와 기도, 성서 공부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락과 친교를 통해 서로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데즈모스 수련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우크라이나, 그리스, 미국, 에티오피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예배와 기도, 중심 주제 토론, 친교와 오락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과 수련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스텝 및 주방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죽음을 떠올리면

어느 사부가 유익한 말씀을 청하는 젊은 형제 수도사들에게 말했다.

“언제나 눈앞에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소심함을 이겨내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본 후에 이어서 말했다.

“나는 여기 이 직조기 축이 지금까지 회전했던 수만큼이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네.”